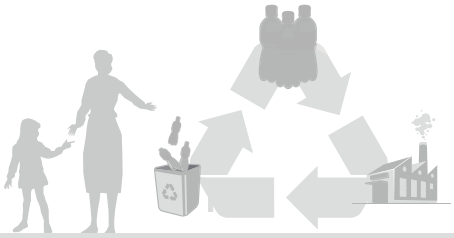
063 폐기물 재활용방식 기준 완화로 재활용시장 진입기간 단축

재활용 신기술 시장 진입 기간 4배 이상 빨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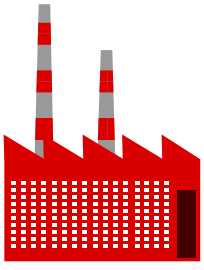
폐기물 재활용업자 P씨는 새로운 폐기물 재활용방식을 개발했지만 자신이 발명한 신기술이 법에서 정한 시장 진입 조건과 맞지 않다는 말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P씨는 걱정을 덜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57개 기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법에서 금지하는 소수의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신기술이 재활용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렸던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로 줄어들며, 재활용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 **연 2,000억원의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기대**

재활용시장 규모 약 45% 증가 예상
('13년 4조5,000억원 ➡ '17년 6조5,000억원)



개선 전

법에서 규정한 용도·방법(현행 57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

개선 후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환경부, '14.9월 제출)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064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다시 태어나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폐기물이 왜 가축분 퇴비의 원료는 될 수 없나요? 유기물 함량이나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하다면서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자인 N씨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로 N씨의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유기질 비료 중 농림 ·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는 단지 사용원료에 따라 종류가 구분돼 있었지만 이런 불합리한 구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시장 활성화도 기대하게 됐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로 활용, 연 약 460억원의 신규시장 창출 예상**

개선 전

'가축분 퇴비'와 '퇴비'는 유기물함량,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함에도 음식물쓰레기는 퇴비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 제약

개선 후

가축분 퇴비 및 퇴비의 원료규정을 통 · 폐합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개정 (농진청, '14.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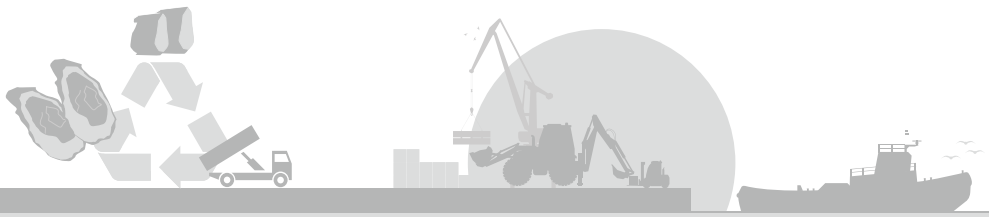
문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

065 굴 껍질,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

해안을 어지럽히던 그 많은 굴 껍질이 어디로 갔지?

"보기 흉하고 환경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굴 양식으로 생업을 잇는 M씨는 굴을 깔 때마다 쌓여가는 껍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식장들이 굴 패각을 해안이나 인근 연안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안어장의 오염 발생과 해안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방치돼 있던 굴 껍질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굴 껍질을 재활용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굴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더 이상 해안에 방치하지 않고 매립지의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야적 방치되고 있는 굴 껍질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연 40억원 절감 및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예상**

개선 전

폐패각(버려진 굴 껍질)의 재활용이 불가해 해안에 야적 방치

개선 후

폐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 '14.7월)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066 폐기하던 계란껍질, 비료 원료로 재활용

계란껍질, 비료로 쓰니 쓰레기 줄어 좋고, 농민도 좋고!

"매일 버리는 계란껍질이 수두룩한데, 볼 때마다 참 아까워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O씨는 버려지는 계란껍질을 볼 때마다 재활용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동 · 식물 잔재물인 계란껍질은 비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계란껍질들은 필요 없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계란껍질로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규제 개선으로 인해 버려지던 계란껍질을 인근 농가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동 · 식물성 잔재물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비료원료 활용 확대**

개선 전

폐기하던 난각(계란 등의 껍데기)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

개선 후

폐 난각 등 동 ·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해 비료로 제조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3.12월)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